

청계천 공간의 변화와 시기별 미디어 담론 변화에 대한 일 사례 고찰:

조선일보의 1960년대, 1980년대, 2005년 담론을 중심으로*

김병욱** · 엄정윤*** · 김승현****

본 연구는 청계천 공간의 역사적 변화 시기마다 미디어 담론이 청계천 공간 생산과 어떻게 관련을 맺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청계천 공간의 생산과 미디어 담론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담론의 규칙성을 찾는 작업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청계천 복원을 자본주의 확장 과정에서의 공간 생산과정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1960년대 미디어 담론의 하나로서 전근대적 육체와 시설이 시간의 효율성으로 쪼개진 공간을 실천하면서 근대적이고 도시적인 ‘일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관찰되었다. 이후 1980년대의 담론 중에서 청계천은 ‘도심 부적격 시설’이 밀집된 공간으로 재현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으며 자본축적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 청계천 공간에서 이질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질적인 정체성이란 다시 말해, 청계천 공구상가의 구조적 양식을 이태한 청계천 공간의 ‘장소성’으로서, 담론화 과정을 통해 자본 축적의 효율성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청계천 공간에 대한 ‘평가절하’ 및 ‘가치파괴’로 재현되었고, 2000년 이후 환경 및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상’으로 이어져 청계천 복원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2005년 복원된 청계천 공간은 청계천에 흐르는 물과 녹색 풍경, 역사적 구조물, 문화시설 등의 기표들을 통해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신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질화된 소비 패턴을 실천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생산의 시대에서 소비의 시대로 전환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담론화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공간, 공간의 생산, 공간의 재현, 담론분석, 청계천 복원

1. 들어가는 말

2005년 10월 1일, 도로로 덮여 있던 청계천에 새롭게 물길이 열리게 되면서, 청계천은 주변 경관 뿐 아니라 청계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까지도 바꾸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청계천은 끊임없이 그 역할과 기능을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 청계천은 일본인 거주 지역과 조선인 거주 지역을 가르는 상징적인 경계선이었다. 1960년대의 청계천은 도로로 덮이면서 근대적 발전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 와서 강남이 개발됨에 따라 발전이라는 상징성을 잃게 되었다(전우용, 2001). 이후 청계천은 2005년에 도로가 제거되면서 사람들의 삶과 생태, 문화 및 역사의 복원을 상징하게 되었다. 청계천 공간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1960년대의 청계천 공간과 1980년대의 청계천 공간은 물리적 경관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1960년대 발전을 상징하던 청계천 공간이 1980년대 들어 ‘도심 부적격 시설’이 밀집한 공간으로 지적되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반면,

* 본 연구는 김병욱의 200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부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함.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대학원 석사 (byungkim98@gmail.com)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sssamzi@naver.com)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shykim@korea.ac.kr)

2005년 청계천 복원의 경우는 1980년대에 들어와 이미 다른 ‘의미’를 생성하고 있었던 청계천이 그 물리적 형태인 ‘기표’를 바꾸어 대응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청계천 공간 생산 과정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천과정과 그 궤를 같이하면서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그 의미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곧 청계천 공간의 구체적인 생산과정에 의미를 생산하는 담론화의 과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공간연구에서 일컬어지는 공간의 생산이란 물리적 경관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기존의 건축물이 파괴되고 새로운 구조물이 창조되는 과정—소위 일컫는 재개발—은 공간이론의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이론이 보다 주목하는 것은 공간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생산되고, 생산된 공간들은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며, 이러한 공간 생산 과정과 생산된 공간들이 사람들의 공간 인식 및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공간이론가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특정의 생산 양식이 고유한 공간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양식의 변화는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H. Lefebvre, 1974/1991). 이에 덧붙여 하비(David Harvey)는 파괴되고 구축되는 ‘건조환경’이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생산된 공간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D. Harvey, 1982/1995, 1989/1994). 따라서 청계천 공간 생산양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할 때, 한국의 근대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변동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화와 공간 생산의 관계는 미디어에 의한 공간재현, 즉 일례로 담론화의 변화 과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미디어 담론을 통해서 청계천이라는 공간의 생산과정에 접근함으로써 미디어 담론이 새롭게 생산된 청계천 공간의 ‘경험’과 ‘인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미디어 담론의 배치가 달라짐에 따라 청계천이라는 동일한 공간 텍스트가 어떻게 의미 변동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청계천 공간에 대한 담론을 196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05년의 시기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것은 미디어 담론과 공간 실천이 연관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담론화의 특징 혹은 유형들을 추출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미디어의 공간 재현과 물리적인 청계천 공간 생산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들을 생산해 내는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2. 르페브르와 하비의 공간 이론 및 선행연구

공간연구에서 르페브르와 하비의 이론은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르페브르의 논의는 지금까지 선행적으로 주어진 대상이거나 혹은 기하학적 측량의 대상이었던 ‘공간’을 생산 개념과 접목하여 변화하는 대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르페브르에게 공간은 물리적으로 개념화된 ‘구조’와 인간의 창조적인 ‘실천’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이다. 또한 르페브르의 공간은 인간의 실천을 통해 생산되는 ‘산물’임과 동시에 인간의 의식과 실천을 소외시키는 ‘상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이라는 개념은 ‘상징’이 작동하는 공간을 내포한다. 이를테면, 르페브르는 인간이 ‘도시적 실재(urban reality)’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질서를 체화하게

되며, 그 결과 ‘공간의 재현’ 즉, 자본주의적 공간의 상징질서 속에 위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개념 정립은 공간이 선형적으로 주어진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 ‘실천’ 속에서 ‘지배적 질서’, ‘상징’, ‘실재’가 구성된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르페브르의 이론은 구조주의 이론에서 인식론적으로 단절된 ‘주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르페브르가 ‘생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바로 “생산의 결과(product)만이 아니라 생산의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주체’와 ‘대상(객체)’이라는 철학적 사고의 대립물을 통합시키고 주체를 생산과정 속에 복원시키려는 시도(김남주, 2000, p.65)”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르페브르가 제시한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 개념에도 해당된다. 르페브르는 ‘재현의 공간’을 ‘생동(lived)’공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개념은 인간의 상상력이 작동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현의 공간’이란 단순히 ‘공간의 재현’을 통해 규범화된 ‘상상’의 영역 즉, 차단되고 억압된 영역이라기보다 수동적 삶과 능동적 삶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징 질서를 실천하는 호명된 주체와 역동적인 인간의 ‘욕망’이 ‘재현의 공간’에서 모두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르페브르의 이론에서 ‘공간의 재현’과 ‘재현의 공간’은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에서 중첩되어 드러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르페브르가 설명하고 있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인 것이다(H. Lefebvre, 1974/1991).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은 구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결정된 ‘구조’가 아니라 내적 변동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즉, 인간의 무/의식적 실천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역동적인 대상인 셈이다.

반면, 하비는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 의미를 획득하는 실재적 대상으로서 공간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하비의 이론은 자칫 관념적 논의에 머무를 수 있는 르페브르의 이론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하비는 “공간이란 어떠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배열되었는가를 건립형태를 통해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며, 공간 안에서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 관련을 가지는 기능적 총체(D. Harvey, 1973/1983, p.263)”라고 설명한다. 즉, 하비의 이론에서 자본주의적 공간은 산업 자본주의적 양식에 의해 배열되어 기타 요소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기능적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시되는 것이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¹⁾ 개념이다. ‘건조환경’은 주택, 학교, 공장, 도로 등과 같이 물리적 대상임과 동시에 생산관계의 결정과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기도 하다. 최병두는 “실재론적 공간연구는 공간의 ‘구조적 속성(예를 들어, 계급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적 속성)’과 ‘비구조적 속성(예로, 일상 관계나 주체적 실천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적 속성)’이 통일되어 존재하는 공간의 실재성을 탐구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최병두, 2002, p.124). 즉, 하비의 이론은 ‘파괴’와 ‘구축’을 반복하는 특정 사회의 물리적 실재—건조환경—가 해당 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체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르페브르의 이론은 ‘공간’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에, 그리고 하비의 이론은 ‘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에 영향을 주면서 공간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1) 하비는 ‘건조환경’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물리적 경관에 체현된 사용가치를 이루면서, 광범위하고 인공적으로 창출된 자원체계로서 기능하고, 생산·교환·소비를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건조환경’은 주택, 학교, 공장, 도로 등과 같은 공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비는 ‘건조환경’은 “지리적으로 배열되고 복잡하며 합성적인 상품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존의 ‘건조환경’이 ‘파괴’되고, 자본의 회전 속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과정은 자본주의 발달의 과정과 자본축적 체제의 위기극복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설명한다(cf. D. Harvey, 1982/1995, p.233, pp.314~318).

토대로서 역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공간연구는 ‘공간·정치경제학화’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강내희(1997), 이진경(1997a, 2007), 김왕배(2000), 최병두(2002), 심승희(2004) 등의 저서는 도시공간과 문화적 실천양식의 형성, 근대성과 공간의 문제, 정치경제학적 공간연구의 소개 등을 중심으로 공간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간과 미디어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공간과 미디어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활성화된 형편은 아니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디어가 공간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승현, 2001; 2007). 김수미(1999)가 소비·문화 공간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맥락과 미디어의 재현양식, 그리고 이러한 재현양식이 공간의 생산에 대해 갖는 함의를 밝히는 연구를 한 바 있다. 또한, 최진호(2003)의 독립신문의 근대성 재현에 대한 논의, 김남일(2006; 2008)의 강남권역의 형성과 미디어에서의 재현 등의 연구가 공간과 매스미디어의 문제를 분석하였고, 최근 김승현 등(2007)은 미디어가 공간의 생산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전체적인 이론 틀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디어가 공간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그리고 미디어의 공간 재현이 사람들의 공간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살펴본 점이며, 본 연구는 이들 연구의 연장선에서 조선일보를 통해 재현된 청계천 공간의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3. 방법론적 논의 및 연구문제

청계천 공간의 복개공사와 복원공사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에 의거하여 보도기사들에 대해 시기적으로 접근해보고, 각 시기별 담론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경제적, 산업적 준거점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국내 경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던 과정 중에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분석은 각 시기에 집중 육성되었던 산업을 살펴볼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62년과 67년에 시작하는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광공업과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2차 기간(1967~1971년) 동안 제조업은 연평균 21.8%의 성장을 하게 되었다(박영철, 1979, pp.61~63). 또한 박영철의 연구는 3차 기간(1972~1976년) 동안 제조업의 성장세가 앞선 기간에 비해 떨어졌다고 분석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배분이 증가하던 이 기간을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1979, pp.69~71). 이를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를 경공업 및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육성되고 성장하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산업구조가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서비스 산업으로 개편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희(1996, p.184)가 1981년과 1991년 사이의 서울시 구별(區別) 고용자수 및 인구수 변화에 대한 추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종로구 및 중구의 쇠퇴와 서초구 강남구 인구 증가 및 고용인구의 급격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청계천을 비롯한 강북이 쇠퇴하고 강남이 성장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한강 다리의 증설로 인한 도심과 강남의 이동 용이,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지방과 강남의 연결, 이에 따른 새로운 중심지 형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미개발 지역이었던 강남 일대가 새롭게 변동하고

있던 금융과 서비스 및 IT업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최근희, 1996, p.164; 전우용, 2001, p.35; 심승희, 2004, p.258).

<표 1> 조선일보 기사의 시기별 주요내용

시 기	선별기사 주요내용
1961.02.09. ~ 1975.05.08.	-북개이전의 청계천(판자촌)관련: 위생문제, 오물·악취, 사고, 철거관련, 생계문제 12건 -북개되는 청계천 관련: 현대적 건물, 근대화, 시장·경제 관련기사 5건
1978.01.14. ~ 2000.08.07.	-도심부적격 시설에 대한 이주정책과 관련 5건 -시위와 관련 2건 -주차문제 7건 -거리시위 관련 6건 -도심부적격시설 관련 1건 -범죄 및 안전문제 2건 -기타 3건
2001.01.21. ~ 2008.05.27.	-청계고가 안전문제 4건 -서울시장 선거 관련 4건
2001.01.21. ~ 2008.05.27.	-경제 및 부동산 29건 -공구상 이주정책, 철거문제 21건 -문화·생태·역사 복원에 대한 희망 14건 -재개발 비리 및 난개발 비판 13건 -서울시 계획 및 입장 8건 -전문가 의견 2건 -청계천의 먹거리·볼거리 관련 9건 -촛불 시위 및 거리시위 관련 3건 -기타 청계천 복원 비판 2건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 산업적 흐름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기사들을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경공업 및 제조업 기반의 산업 시기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복원사업 대두 전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 담론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박영철(1979)과 최근희(1996)의 연구에서 정리한 한국의 경제 변화 과정을 기준으로 청계천 공간 담론의 변화를 시기 구분하고,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1961년 1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기사들 중 ‘청계천’ 제목·본문 검색을 실시하여 150여 건의 기사를 선별한 결과이다. 물론 매체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한겨레신문 기사도 살펴본 바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다. 우선, 1990년대 중·후반 청계천 일대의 주·정차 문제에 대한 기사와 2000년대 초반 경제효과를 통한 인간 삶의 향상을 청계천 복원의 당위성으로 제시하는 기사가 가지고 있는 논점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효율성을 통해 공간을 쪼개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다. 이는 미디어의 공간재현 양식이 매체의 특성과 무관하거나 혹은 공간 실천 양식의 규칙성이 매체 특성을 넘어 존재하는 다른 ‘무엇’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1990년대 초·중반 청계천 및 종로 일대 거리시위에 대한 기사의 경우,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것은 청계천 공간에 대한 담론이라기보다는 ‘거리시위’에 대한

각 신문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가 청계천 공간의 역할과 기능, 그 가치와 의미가 시기에 따라 변화해 온 맥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단순히 시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차이를 통해 공간을 다르게 재현하는 특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동의 효율성을 담지 하는 ‘도로’의 시위대 전유에 대한 기사들은 지배적 공간담론에 대항하는 또 다른 실천적 담론 형성의 측면에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 차례의 시위에 대한 보도만으로는 모순된 공간담론의 충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계천 복개공사와 복원 공사의 담론화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주류 보도 매체의 하나인 조선일보 담론에 대한 사례 분석에 국한하여 의미생산 과정의 흐름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에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결국 ‘도로가 덮여 있었던 청계천(이후 복개청계천)’과 ‘도로가 제거된 청계천(이후 복원 청계천)’이라는 기표가 담론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획득했으며, 또는 어떻게 그 의미를 바꾸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청계천을 둘러싼 담론들이 자본주의 생산양식, 또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확산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문제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청계천 복개공사, 1980년대의 청계천 산업용재상에 대한 정비계획 그리고 2005년의 청계천 복원공사를 아우르는 조선일보 기사들은 각각 주요 시기마다 청계천 공간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또한 ‘1960년대부터 2005년까지 청계천 공간의 생산양식 변화와 담론의 변화는 어떠한 관련성 혹은 규칙성을 가지고 의미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분석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4. 청계천 공간과 미디어 담론

1) 근대적 공간의 생산

1960년대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근대화’와 맞물려 있는 청계천 공간에서 근대적 공간의 배치와 기능이 구성되며, 이에 따른 공간의 의미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한국전쟁 이후 청계천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판자촌을 형성했다. 악취와 오물로 뒤덮여 사람들이 찾지 않던 청계천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터전을 형성할 수 있는 입지를 제공했으며, 그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청계천에 묻힌 고물을 주워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전우용, 2001). 하지만, 사람들이 청계천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는가의 문제보다 청계천이 지리학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였다. 청계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과 도심 한 가운데를 지난다는 점에서 위상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또한 근대적 공간에 대한 관념이 시간의 관념에 지배받는다는 측면에 주목해보면, 이동의 효율성, 용적률의 최적화와 단위 시간당 생산량의 극대화 등을 앞세운 근대 사회의 공간개념을 중심으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에 의해 점유된 청계천에서 더 효율적인 공간실천에 대한 ‘상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사 1> 조선일보 1961. 2. 9. / 석간 3면

오물 덮고 새 상가—이제는 전설처럼(청계천 암거공사)

(상략) … 현재 방산교 지나서 중간까지 8할 이상이 완성되고 가을까지는 나머지 오간수교까지 … (중략) … 공사 진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와 장애가 앞을 가로막았으나 현재 … (중략) … 양편 판잣가게 철거로부터 더욱 공사는 빨라지게 될 것이 예상 … (중략) … 복개공사가 완성되는 날 서울의 하수도는 그대로 옛 모습을 감춘 채 밑바닥을 흐르지만 그 위는 79,840평방미터나 되는 도로가 생기게 되어 복잡한 서울의 교통을 완화시키는 물론 … (중략) … 동대문 시장상인들의 거출로 이루어진 4층짜리 평화상가 빌딩이 현대적 모습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기사 1>은 청계천 복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몇 가지 명제 속에 담고 있다. 복개 이전의 모습에서는 ‘서울의 하수도’가 되어 옛 모습을 감춘다는 명제와 애로와 장애가 앞을 가로 막았다는 명제가 만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개 이후의 모습은 ‘도로’가 되어 ‘복잡한 서울의 교통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명제와 ‘빌딩’이 되어 ‘현대적 모습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명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지시적 사물인 청계천 공간은 ‘서울의 하수도’라는 상태에서 ‘도로’와 ‘빌딩’이라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은 명제의 바뀔, 즉 새로운 ‘의미’의 생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청계천 공간이 복개 이전에서 이후로 ‘상태’를 바꾸게 되는 과정은 옛 모습에서 현대적 모습으로 그리고 복잡한 서울의 교통에서 완화된 교통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사회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해석해보면, 이러한 담론화 과정은 60년대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성장하고, 서울의 근대화로 인해 도로와 빌딩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따라서 청계천 복개공사는 단편적인 ‘공사’ 혹은 ‘사실’로만 볼 수 없으며 복개 이전의 청계천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의미’를 생성하면서 서울을 자본주의적 근대화로 이끄는 ‘사건’²⁾이 되는 것이다.

<기사 2> 조선일보 1961. 12. 5. / 석간 3면

복개도로 개통—광교↔오간수교간 청계천

(상략) … 서울의 중심부를 꿰뚫고 흐르던 청계천이 덮임으로써 도시미관으로나 시민의 보건위생상 또는 교통난 해결 등에 큰 도움을 주게 됐지만, 5세기 동안 개천과 더불어 내려온 시정과 천변풍경의 아취도 함께 묻어진 것이다. … (중략) … 이날부터 이 길을 다니게 된 ‘빠스’와 합승 ‘택시’가 첫 길을 텃다.

<기사 2> 역시도 <기사 1>과 동일한 유형을 나타내는데, 청계천 복개 공사가 정취와 풍경을 묻어버렸으나, 도시미관, 보건위생, 교통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사건’으로 정립된다. 즉, <기사 1>과 <기사 2>에서 청계천이라는 ‘기표’는 도로로 덮여 자동차가 다니고 현대적 빌딩이 건설되는 ‘상태’의 변화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반의 변화를 긍정하도록 만드는 의미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청계천을 복개하는 것은 작게는 도심에 거리의 마찰을 줄이는 ‘도로’가 생기고, 근대적 빌딩을 비롯한 생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됨을 의미하지만, 더 크게는 사람들의 도시공간에 대한

2) 사고란 사물의 상태가 시·공간적으로 유효화한 것이며, 사실에 관한 범주이다. 반면 사건이란 어떤 사물의 상태나 사실을 다른 상태나 사실에 연관 짓는 ‘관념적’ 성격이 개입된 범주이다(이진경, 1997b, p.17). 즉, 청계천 복개 이전의 ‘상태’에서 이후의 ‘상태’로 생성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비물질적인 명제의 논리적 관계가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경험을 시간의 효율성으로 배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는 도심에서 생산된 재화를 도심 외곽으로 쉽게 이동시키며, 그 결과 도심원을 그리며 도심 외곽으로 거주지가 형성되는 등 근대적 도시의 외형이 갖춰지게 된다. 삶의 터전과 일터의 구분은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이 정해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시간으로 통제되는 공간에 적응한다. 결국 근대적 시·공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이진경, 1997a). 이것이 바로 르페브르가 언급한 “도시적 실재”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 자본주의적 상징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디어 담론을 통해 생산된 청계천 복개공사라는 ‘사건’은 새롭게 생산된 공간에 대해 긍정하는 ‘상징’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근대성’의 경험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³⁾

정부는 오간수문교까지 복개를 마친 후 공사를 연장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막대한 자금이며, 두 번째는 청계천을 따라 신설동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판자촌에 대한 철거 작업이었다.

<기사 3> 조선일보 1962. 8. 2. / 조간 3면

청계천 복개공사—민간자본으로 이룩될까?

(상략) ... 민간자본으로 시공하여 시에 기부하면 그 댓가로 5천평의 대지를 줄 것이라고 시공업자 선정의 ... (중략) ... 판잣집 1천여 세대의 영세시민들이나 건설업체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 (중략) ... 4백여 가량의 판잣집은 연내로 철거해야 ... (중략) ... 하천 부지나 제방 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 (중략) ... 5평짜리의 판잣집을 짓고 있는 그곳을 어떻게 분할하여 팔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따른다. ... (중략) ... 주민들은 또 시공업자에게 준다는 5천평의 땅을 자기네에게 팔아서 그 돈을 시공업자에게 줄 수 없겠느냐 ... (중략) ... 이 땅은 복개공사가 되어야만 땅값이 쯤중 오를 것이며 ... (하략).

<기사 3>을 살펴보면, 정부는 민간 자금으로 시공하고, 그 대신 공사가 끝난 후 시에 기부하면 5천평의 대지를 주겠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판자촌으로 이루어진 청계천 공간은 복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새로운 ‘가치’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추상적 공간’ 개념은 “사물과 기호들의 도식화된 관계집합과 같이 ‘대상적으로’ 기능하며 ‘차이’를 추상화하여 상징질서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H. Lefebvre, 1974/1991, p.49). 즉, 자본주의적 공간은 공간에 내재하는 ‘차이’를 추상화하여 화폐적 가치로 환원하는 ‘추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사 3>에 내재된 공간 담론은 ‘장소’⁴⁾를 추상화하여 포획된 자본주의적 규칙 속으로 환원하는 자본주의적 공간 개념을 재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3) 르페브르는 “본질에서 파생된 상징이 이성적 명료함을 은폐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역사성을 은폐함으로써 이미지가 자체의 기원을 갖도록 한다(H. Lefebvre, 1974/1991, p.30).”고 설명한다. 즉, 미디어 담론을 통해 생산된 청계천 복개 공간의 ‘의미’가 이전의 공간경험을 새로운 공간경험으로 대체한다.

4) 푸코는 메타서사에 대한 반격을 피하면서 미시적 권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반적 권력 메커니즘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얻고 식민화되고, 활용되고, 원상태로 돌아가고, 탈바꿈되고, 전위되고, 확장되어 왔는지”를 중요하게 언급한다(D. Harvey, 1989/1994, pp.71~72). 포괄적 일반이론들로 설명될 수 없는 국지화된 맥락 즉, 체계적인 계급 지배 전략과는 상관없이 분산적이고 조각난 권력조직들이 세워지는 ‘곳’을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Ibid., p.72). 따라서 상징과 기호체계가 만들어내는 권력의 시스템인 ‘공간’은 ‘공간’의 일반적 법칙 뿐 아니라 ‘장소’에서의 실제 삶이 만들어내는 미시적 권력을 함께 설명함으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공간을 ‘영토화’하는 과정에서 거주연고권을 주장하는 판자촌 주민들의 삶은 배제되기 시작한다. 이외에도 1960년대 후반 청계천 관련 기사들에서 유독 사고기사가 많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사 4> 조선일보 1968. 4. 4. / 조간 7면

청계천 판자촌에 큰불—어린이들 성난불 장난에 55채 전소(全燒), 재민(災民) 3백 82명

(상략) … 청계천변에 밀집한 무허가 판자집 55동이 전소, 이재민 82가구 … (중략) … 피해가구가 이처럼 많은데도 경찰은 피해액을 모두 60만원으로 추산했다. … (중략) … 선경(가명·11·모초등학교 4년)아이 동생들과 성난불로 장난하다 … (중략) … 청계천 다리가 교각만 세워진 채 완성되지 않아 … (중략) … 좁은 골목으로 가는 바람에 … (하략).

<기사 5> 조선일보 1968. 4. 23. / 조간 7면

트렁크 속에 어린이 변사체—당현동 청계천 독밀 죽은지 이틀…생후 2년 6개월

(상략) … 트렁크가 놓여있던 곳은 당현동. 방범초소에서 30m 가량밖에 안 떨어진 곳이지만 이광택씨집 외의 인가는 모두 독 너머에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이며 더구나 밤 11시만 되면 이 독에는 사람의 통행이 별로 없는 우범지대다. … (하략).

<기사 6> 조선일보 1968. 12. 20. / 조간 3면

신설동 판자촌에 큰불—부부싸움에 석유곤로 얹어져—재민(災民) 천명 순식간에 불탄 밀집지대 80여동

(상략) … 화재현장은 판자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소방도로도 없고, 한집에 2·3가구씩이 몰려있어 불이나자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좁은 골목에서 아우성치는 주민들의 인파로 진화작업은 거의 불가능했다. … (하략).

<기사 7> 조선일보 1969. 10. 21. / 조간 7면

청계천 판자촌에 불. 냇마 연탄불에 인화 …4명 중경화상—50여동 전소

(상략) … 이날 진화시간이 늦은 것은 소방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변 판자집들을 철거한 뒤 소방차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 (하략).

<기사 8> 조선일보 1969. 11. 19. / 조간 3면

청계천 상가에 불—승인동 판자촌서도 80여채 태워

(상략) …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길이 좁고 소화전이 없어 진화작업이 늦어졌다. 이 판자촌은 지난 3월에도 무허가 판자집 2백여 동이 전소되어 다시 지은 것이다. … (하략).

<기사 9> 조선일보 1969. 12. 18. / 조간 7면

8명 소사—청계천변 화재

(상략) … 불이난 이 일대는 10여 년 전부터 무허가 판자집들이 뽁뽁하게 들어선 곳이며 주민들은 주로 무허가 하숙과 낚싯배, 유객행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시당국은 내년 봄 이 지역을 정리, 아파트를 세울 계획이었다.

청계천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다루는 각각의 사고 기사에서 등장하는 청계천 판잣집의 밀집된 형태, 무허가 건물, 어둡고 인적이 드문 분위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등은 복개 이전 청계천 공간의 물질적 지시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물질적 ‘상태’가 화재와 만나고, ‘유아의 변사체’와 만나 명제를 이루게 되면서 청계천 공간의 담론화에 개입하게 된다. 우선 화재사고를 살펴보면 의미 생산의 두 계열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화재-판자촌-재산손실’이라는 계열이며, 또 다른 하나는 ‘판자촌-화재-진화의 어려움’ 계열이다. 첫 번째 계열에서 ‘화재’는 원인이며, ‘판자촌’은 장소이자 대상이고, ‘재산손실’이라는 결과를 수반한다. 하지만, 두 번째 계열에서는 ‘화재’가 대상이며, ‘판자촌’이 원인이며, ‘진화의 어려움’을 결과로 가져온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발생한 화재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고’이기도 하지만, 화재와 판자촌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판자촌의 좁은 골목과 밀집된 형태가 화재진압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된 ‘의미’는 당시 청계천 복개공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실화 된다. 즉, 청계천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논의되고 있었던 청계천 복개공사의 당위성을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대화의 상징으로서 청계천 복개공사를 담론화 하는 것은 잠재적 사고발생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사람들의 ‘공간인식’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요컨대, 청계천 복개공사는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립하고 재화와 화폐의 흐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조업 기반의 공장 및 설비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담론은 현대적 건물과 도로를 발전의 상징으로 구성하며 당시대의 공간에 내재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복개공사의 ‘의미’를 생산함으로써 근대적 공간의 실천과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인식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화폐와 재화의 용이한 흐름으로 구성되는 근대성에 대한 경험이 공간 인식과 연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욕망까지도 상징 질서 속에서 재편되는 지점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개개인의 욕망을 근대적 욕망과 근대적 공간 인식으로 ‘재배치’하는 과정, 곧 ‘근대성’에 대한 경험이 지배적 담론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배치의 변화와 의미의 생성: ‘도심지 부적격 시설’ 논의

앞서 제시한 최근희(1996), 전우용(2001) 등의 연구에 의하면, 70년대 이후 강남은 ‘부도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갖추기 시작한다. 금융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강남 일대는 1980년대, 한국 경제에 위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새롭게 서울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⁶⁾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 근대화를 상징하던 3·1빌딩, 청계고가도로 및 청계천은 그 위상을 63빌딩과 올림픽대로, 한강에 넘겨주게 되고, 강남과 강북으로 이원화되는 시대가 시작된다(전우용, 2001, p.35). ‘발전’의 상징을 잃어버린 청계천 일대는 이후 ‘도심지 부적격 시설’이 밀집한 공간으로 재현되기 시작하고, 일대의 산업용재상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받게 된다.

5) ‘재배치’란 푸코와 들뢰즈가 사용한 용어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분할하여 특정한 형태로 분배하는 배치의 형태를 말한다(이진경, 1997a, pp.91~1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간의 생산 과정에서 특정한 인식과 경험의 체계를 구축하는 담론의 기능이라고 파악했다.

6) 강현수(1993)는 80년대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중화학 분야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에 따른 누적된 모순이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과 결합하면서 자본축적의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사 10> 조선일보 1978. 6. 21. / 조간 6면

청계천 2~4가 을지로 일대 상가 강남 이전계획 검토-「도심기능 재배치 방향」 세미나

(상략) ... 김씨는 주제발표를 통해 4대문안 도심지 부적격 기능(시설)은 과감히 이전, 재배치돼야 한다고 전제 ... (중략) ... 다도심 기능과 유기적 관계가 적은 주택공사, 조달청, 한전본사, 도심부적격시설이 밀집돼 있는 청계천 상가와 을지로일대 상가권은 과감히 정비 ... (중략) ... 청계천 2가~4가 일대는 4천5백27개의 소점포가 밀집, 그중 산업용채취급소는 3천5백20개로 전체의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채상은 기계공구 6백 46, 차량부속 6백 4, 공작소 5백 81, 원자재 4백 11, 전기 7백 86, 전자 3백 76개소 등으로 구성, 부적격 기능으로 지적됐다. ... (하략).

<기사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도심 기능과 유기적 관계가 적은 시설을 비롯하여 청계천 일대의 산업용채 취급소들이 ‘도심 부적격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춘희는 “‘도심 부적격 기능’의 존재는 도심과 비도심의 이중적 구조를 유발하여 토지이용의 비능률화, 교통난의 가중, 토지이용 간 모순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난다(이원호, 1989, p.30에서 재인용).”고 설명한다. 또한, 이원호(1989, p.30)는 ‘도심 부적격 기능’은 도심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적으로 진화하지 못한 것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동일한 ‘기표’가 배치의 변화 혹은 인접하는 지역들과의 관계변화를 통해 다른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60년대의 청계천 공간과 80년대의 청계천 공간은 청계천의 도로와 빌딩 및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시설 등 물리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발달단계에 따라 구조적으로 진화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전’의 상징이었던 청계천이 오히려 도심 부적격 시설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 의미가 전이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도심 부적격 시설’ 논의의 기저에 깔려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도심 부적격 시설’ 논의는 결국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이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와 하비의 관점에 의존하여 자본주의적 공간이란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고 자본 축적의 효율을 가속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도심 부적격 시설’ 혹은 ‘부적격 기능’은 자본회전의 효율성에 의해 정의 내려지는 ‘도심 기능’의 부재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복개 청계천이라는 동일한 기표가 ‘발전’을 상징하다가 ‘도심 부적격 시설’로 그 의미를 바꾸게 되는 과정은 청계천 공간이 지배적 공간 담론 속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해 청계천 공간은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과정에서의 지배적 담론에 의해 부적절한 공간, 결핍된 공간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기 위해 <기사 11>과 <기사 12>를 살펴본다.

<기사 11> 조선일보 1980. 1. 9. / 조간 7면

청계천변 점포 외곽 이전-섬유류·공구상 등 도심 부적격 업소-동(同)종류별로 자율추진...부지매입 지원-교통 혼잡 덜고 미관 개선

(상략) ... 이전대상업소들이 상품의 빈번한 수급으로 항상 화물차량을 필요로 해 ... (중략) ... 심한 교통체증을 빚어온 요인이 되었었다고 지적했다. ... (중략) ... 일정지역을 용도 지정하여 이들이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 (중략)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시미관, 업소 밀집 현상으로 인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 (하략).

<기사 12> 조선일보 1990. 1. 5. / 22면

폭발점에 이른 도시 교통정체—불법주차 무조건 견인해야—서울 하루 만 여대... 길 33% “체증”—소방차 진입 방해 대형 참사 유발—주차빌딩·공동시설 등 공간 확보도 시급

(상략) ... 을지로의 6차선 차도로는 이 일대에 밀집해 있는 각종 건재 공구상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여기서 물건을 사가는 차량들의 노상불법주차로 교통이 늘 막히는 곳이다. ... (중략) ... 단속경찰과 상가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상인들은 “가게 앞에 차를 못 대게 하면 우리보고 장사를 그만두란 얘기냐”고 ... (중략) ... 청계1가로부터 청계8가 광장시장까지의 8차선 차도의 양편 2차선은 불법주차로 도로구실을 못한지 이미 오래다. ... (중략) ... 이정현씨(28)는 “범칙금을 내고서라도 장사를 하기위해서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 (하략).

르페브르는 지배공간에 내재된 모순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공간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반면, 하비(D. Harvey, 1973/1983, pp.263~272)는 지배공간에 내재된 ‘차이’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차이와 모순의 표출 결과를 새로운 공간 생산의 잉태로 보는 것에 대해 반박한다.⁷⁾ 만약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설명하게 된다면, 강남일대의 성장을 비롯하여 도시 외곽 지역의 성장이 잉여가치의 유통유형을 변형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의 세계적 경제체제의 위기와 국내 산업이 전환되는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잉여가치의 유통구조 즉, 자본주의 산업양식의 변화가 도시의 내적 관계를 변형시킨다고 보는 하비의 입장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하비(1989/1994, p.270)는 조직형태와 노동숙련, 공장과 기계에 대한 고정투자가 쉽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자본 축적의 효율성을 가속화 하려는 과정은 불연속적이며 주기적인 공황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공장과 노동자의 ‘자연적인’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과거 자산에 대한 강제적 평가절하 또는 가치 파괴에 의존하는 ‘창조적 파괴’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심 부적격 시설’ 담론은 자본주의 산업양식의 변화 및 새로운 권력관계의 반영이자 재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사 11>과 <기사 12>에서 청계천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재화와 화폐의 흐름은 ‘불합리한 유통구조’이자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보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청계천 ‘도로’ 유통의 효율성에 힘입어 전국적인 중심지로 기능했던 청계천 일대의 산업시설은 자본 축적의 가속화 과정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지배적 공간 담론에서 밀려나는 의미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와 1980년대의 청계천 공간이라는 동일한 물질적 ‘지시체’가 일종의 담론의 전환을 통해 서로 다른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는 점은 청계천 공간에 대한 담론이 1960년대의 ‘근대적 산업양식—복개 청계천—제조업의 성장’이라는 의미 계열에서 1980년대 이후 ‘포스트포디즘적 산업양식—복개 청계천—3차 소비재 산업의 성장’이라는 의미 계열로 전환되었으며, 이것은 곧 근대와 발전을 재현했던 복개 청계천이 포스트포디즘적 산업양식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7) 하비에 의하면, 첫째, 사람들은 도시화의 과정에 의해 생산되는 공간의 의미를 거의 알지 못하며 이동의 능률성과 같은 개념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필요창출과 유효수요의 유지에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을 통제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욕구의 반영이 아니다. 셋째, 산업 자본주의 내에서 잉여 가치의 유통 유형이 변하면서 도시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시의 내적 변동이 잉여 가치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다. (cf. D. Harvey, 1973/1983, pp.263~272)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적 공간 개념 속에서 정의되는 ‘도심부적격 시설’ 담론은 자연스럽게 청계천 일대의 상가들을 청계천 ‘도로’에서 ‘탈영토화’시키게 되었으며, 그 결과 ‘건조환경’이었던 ‘도로’는 더 이상 복개청계천 공간의 실천을 매개하지 않게 되었고, 청계천의 시설과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도로’의 흐름을 막는 장벽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또한 ‘도심 부적격 시설’ 담론은 변화하는 자본주의 산업양식 속에서 청계천 공간의 실천적 주체로 자리 잡고 있었던 공구상을 청계천 공간 담론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역사와 문화 공간에 대한 담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효율적인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고 있었던 청계천 공간에서 자본주의 확장 관점에 의한 공간재편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⁸⁾

3) 청계천 복원담론에 잠재된 ‘의미’의 이원성 그리고 ‘의미’의 발생

‘개발주의 시대의 홍물’을 상징하게 되었던 청계천 공간의 도로와 빌딩은 이미 1980년대부터 효율적인 자본축적을 위한 ‘탈영토화’ 논의 속에 있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다시 역사성·문화성·환경성 복원이라는 2000년대의 청계천 복원담론 속에도 함께 어우러져 잠재되어 있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청계천 복원 논의는 2000년 9월 1일 ‘청계천 되살리기’ 심포지엄에서 시작되었는데, 2002년 1월 1일 박경리 작가와 한겨레신문의 대담으로 본격적인 여론의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고,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청계천을 복원하여 자본주의 물질문명과 결별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복개 청계천 공간에 대한 ‘가치파괴’의 과정을 요구하는 두 가지 모순된 힘의 작동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효율적인 자본축적을 수행하는 공간 생산을 위한 ‘가치파괴’ 논의였으며, 다른 하나는 물질문명과 단절된 문화공간의 생산을 위한 ‘가치파괴’ 논의였다. 하비는 “시간과 공간의 객관성은 사회적 재생산의 물질적 실천에 의해서 얻어지며, 이러한 물질적 실천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이 판이하게 구조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D. Harvey, 1989/1994, p.243). 즉, ‘복원’ 담론은 ‘근대화’ 및 ‘개발주의’ 담론과의 변별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내고는 있으나, 그 의미만으로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생산양식에서의 공간생산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청계천 복원 이후 ‘도로’ 대신 등장하는 ‘흐르는 물’이라는 물질적 ‘건조환경’이 어떠한 구조적 속성과 비구조적 속성을 매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복원된 청계천 공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청계천 복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보다 복원 담론에 내재된 서로 모순된 ‘의미’가 어떤 현실화 조건 속에서 지배적 담론으로 드러났는가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대한 보드리야르의 통찰은 청계천 복원 담론에 내재된 요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변동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화 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익한 부분이 있다. 보드리야르

8) 1980년대 청계천 담론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청계천이 자본주의 확장이라는 보편적 공간의 논리 속에서 특수한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저항’했다는 점이다. 이를 청계천 공구상가의 ‘장소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송도영(2001, 2003)과 강우원(1995)은 청계천 공구상가의 장소적 특수성 즉, ‘중심성’과 ‘상호보완성’은 도심 정비 계획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공구상가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르페브르는 보편적 공간 생산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질적 공간실천이 형성하는 ‘장소성’이 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지만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현상은 청계천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장소성’을 논하기에 적절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는 “도시와 공업지대의 확장은 새로운 희소품(稀少品) 즉, 공간과 시간, 맑은 공기, 녹지, 물, 조용함 등을 특권계급만 얻을 수 있는 사치재로 둔갑시키며, 인공적으로 제조된 재(財)와 서비스가 대량으로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한다(J. Baudrillard, 1991/2002, p.66).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변동 과정의 부산물로 생산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결여’가 상품화 되어 다시 인간들에게 소비되고 있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보드리야르는 “욕구의 해방, 풍부함, 지출과 향유 등의 주제가 절약과 노동이라는 ‘청교도적’ 주제를 대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가치체계를 다른 가치체계로 대체하는 것일 뿐, 생산력과 그 통제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똑같은 거대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는데(Ibid., pp.107~108), 이 같은 보드리야르의 해석은 변화되는 현대 사회가 여전히 산업 자본주의의 프로세스 속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하는 하비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하비(D. Harvey, 1989/1994, pp.331~350)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을 설명하면서 ‘즉흥성(volatility)’과 ‘순간성(ephemerality)’을 강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산업양식의 변화과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즉, 공간적 장벽의 붕괴가 자본주의적 보편 공간의 붕괴를 의미하기보다 효율적인 자본의 순환을 위한 공간으로 재생산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생산된 청계천 공간의 ‘건조환경’인 ‘흐르는 물’이 어떻게 인간의 욕구를 자본주의적 산업양식 속에 재배치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사 13> 조선일보 2005. 10. 25. / A13면

공연·전시·독서…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청계광장 등은 아티스트 ‘거점’… 조선일보 ‘유미디어랩’도 새 명소 각광

(상략) …청계광장에서는 6명의 남녀 댄서들이 강렬한 라틴음악에 맞춰 살사댄스 공연을 벌였다. …(중략) … 주말을 맞아 청계천을 찾은 가족 나들이객들은 웬만한 공연장에서도 보기 힘든 이색적인 공연을 즐기는 ‘보너스’에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중략) … 더 많은 공연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 도심 속 나들이코스로 확실히 자리잡은 청계천을 보다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중략) … 청계천 나들이를 계획해 보자.

◆영화는 물론 공연관람도

… (중략) …

◆서점 들러 전시장까지

… (중략) …



청계천에 다시 흐르게 된 ‘맑은 물’과 자연, 문화가 갖는 상징은 매우 다양하다. 도심에 흐르는 물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내며, 청계천의 문화시설들은 물질적이지 않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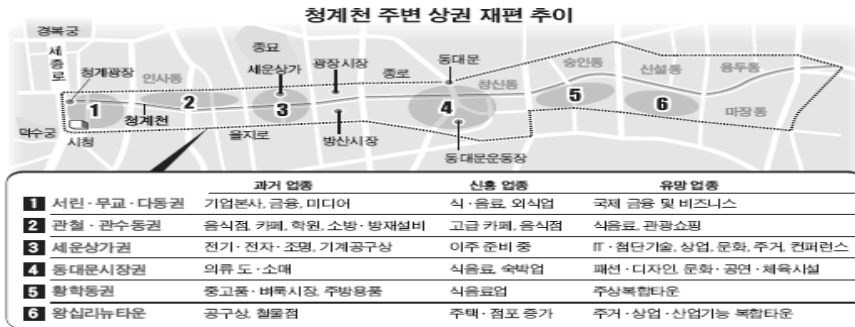
상징한다. 또한, ‘빨래터’, ‘오간수문’, ‘판잣집 모형’ 등의 역사적 구조물들은 역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복원된 청계천 공간에서 인공적으로 흐르는 물과 인공적으로 재현된 역사적 구조물, 그리고 이색적인 공연과 영화관 등의 ‘지시체’ 들을 총체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정신적인 풍요, 행복, 문화, 향수 등의 개념들이다. <기사 13>에서 도심 속 ‘나들이 코스’로 재현되고 있는 복원 청계천은 인간의 욕구가 해방된 공간을 상징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구체적인 공간실천이 자유롭게 이행되는 곳은 청계광장과 청계천 독 밑 물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에 불과하다. 복원 청계천 공간의 ‘현실화 조건’이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통제되고 재편되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기사 14> 조선일보 2006. 9. 27. / A12면

[청계천 복원 그후 1년]

[1] 재현되는 도심 상권-광장시장, 먹자골목으로 ... 애원동물·책방은 한숨

(상략) ... 청계천의 부활은 도시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 (중략) ... 청계광장은 ‘21세기형 먹자거리’로 재단장돼 가고 있다. ... (중략) ... 햄버거 레스토랑 ‘크라제버거’, 기능성 음료전문점 ‘스무디킹’, 패밀리 레스토랑 ‘베니건스’ 등이 경쟁하듯 들어섰다. ... (중략) ... 다만 비싼 새 음식점들에 밀려 허름하지만 싸고 맛있던 식당들이 많이 사라진 것은 아쉽다고 한다. ... (중략) ... ‘고가도로 시절’에 호황이던 기존 업종의 상당수는 내리막길이다. ... (중략) ... 청계천 복원에 따른 업종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 (하략).



<기사 14>는 복원 청계천 공간의 ‘재영토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과 인간의 욕구가 해방된 공간이라는 ‘상징’은 청계천 독 위에 새롭게 형성되는 상권의 흐름을 감추고 있다. <기사 14>에서의 ‘지도’는 청계천을 6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입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시청에서 종로 3가까지의 일대는 금융과 서비스 산업이, 종로 5가에서 동대문까지의 일대는 의류 및 쇼핑 산업이, 송인동과 황학동 및 왕십리 일대는 주택 산업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계천 상류에 형성되는 국제 금융 및 IT 산업과 고급 외식 산업의 경우에도 복원 청계천이라는 상품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청계천 복원 담론에 내재된 이중적 의미, 즉 인간의 욕구 해방과 효율적 자본의 순환이라는 서로 모순된 의미들이 한데로 겹쳐지면서 하나의 현실화 조건을 만들어 내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것이 보드리야르가 말하고 있는 ‘소비 사회’의 출현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흐르는

물’, ‘한적한 식당’, ‘문화시설’들의 배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듯 보이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느낌을 주지만, 이와 같은 건조환경은 인간 욕망의 해방과 여가라는 기호를 생산하며, 사람들을 청계천 공간의 기호 소비자 또는 이러한 기호의 생산자로 연결시키게 된다. 그리고 청계천 이곳, 저곳에 펼쳐져 있는 문화상품의 다양한 기표들은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면서 청계천의 ‘재영토화’ 과정을 돕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근대화’가 빼앗아 간 향수 즉, 녹지와 물, 맑은 공기와 한적한 시·공간이라는 향수에 도달했다는 환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곧 복원 청계천 공간에서 생산되는 ‘신화’이자 일종의 ‘시물라크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비는 포디즘의 위기를 ‘시·공간적 형태의 위기’라고 설명하면서 자본축적이 지리적·시간적 유연성을 성취하는 과정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다(Harvey, 1989/1994, pp.241~246). 결국 자본주의적 확장과 위기관리의 과정은 공간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끊임없이 ‘차이’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이는 동일한 패턴의 소비로 전환되면서 생산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소비사회를 매개하며 생산되는 차이가 ‘시물라크르’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욕망이 실천되는 듯 보이는 청계천 공간은 물질문명과 단절된 인간해방의 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자본의 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재생산되기 위해 인간의 ‘욕망’과 ‘결여’를 생산하며 대규모 자본에 의한 통제 과정을 은폐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⁹⁾ 또한, 이러한 소비사회로의 전환 과정은 1980년대부터 청계천 공간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과정을 통해 준비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청계천 공간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실적 실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 담론을 통해서 유도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 담론은 청계천 공간을 ‘도로’에서 ‘탈영토화’ 시키고, ‘흐르는 물’을 통해 ‘재영토화’ 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물’을 통해 ‘재배치’된 청계천 공간의 담론은 사람들의 공간 실천과 공간 인식을 연결함으로써 자본의 축적 과정에 의해 재편된 도시 일상의 경험을 돕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5. 맺는 말

<표 2>와 같이 한국의 경제 변화 과정을 기준으로 청계천 공간 담론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담론의 성격을 유추해 본 결과, 1960년대 복개공사에 대한 담론은 근대적 자본주의의 성장과정에서 청계천 일대에 들어서는 경공업 및 제조업 기반의 시설들을 근대화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이동의 효율성을 공간 기획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도심 부적격 시설’ 담론은 청계천 일대의 공구상가를 분산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여 자본축적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집중됨으로써 청계천 복원이라는 새로운 축적 체제를 예비했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 3차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적 공간 개념이 생산 중심의 공간으로부터 삶의 ‘여가’와 ‘녹지’ 개념을 앞세워 구성되는 소비 중심의 공간 담론으로 변화한다는

9) 하비는 “일상생활에서 시물라크르들이 뒤얹히게 되면 다양한 (상품의) 세계들이 동일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동시에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그 기원의 흔적을 철저하게 은폐시키며, 그것들을 생산해낸 노동과정이나 생산에 내포된 사회적 관계들의 흔적도 모두 은폐시킨다.”고 말하고 있다(D. Harvey, 1989/1994, p.350).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청계천의 담론화가 ‘근대화의 상징’에서 ‘근대화의 흉물’로 그리고 마침내 도심의 쾌적한 ‘여가 공간’으로 의미를 바꾸게 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표 2> 조선일보 기사의 청계천 공간에 대한 시기별 담론화의 특징

시 기	선별기사 주요내용	담론화 과정의 특징	비 고
1961.02.09. ~ 1975.05.08.	-복개이전의 청계천(관자촌)관련: 위생문제, 오물·악취, 사고, 철거관련, 생계문제 12건 -복개되는 청계천 관련: 현대적 건물, 근대화, 시장·경제 관련기사 5건	이동의 효율성을 비롯한 근대적 삶의 양식을 ‘유인’ 하며 전근대적 삶의 양식을 ‘격퇴’ ¹⁰⁾ 하는 특징을 보인다.	복개 이전의 청계천은 폭행, 강도, 살인, 화재 등 사고기사와 함께 오염, 악취 등으로 재현된다.
1978.01.14. ~ 2000.08.07.	-도심부적격 시설에 대한 이주정책과 관련 5건 -시위와 관련 2건 -주차문제 7건 -거리시위 관련 6건 -도심부적격시설 관련 1건 -범죄 및 안전문제 2건 -기타 3건	자본축적의 기능을 상실한 청계천을 ‘도심 부적격 시설’이 밀집된 공간으로 재현하며, 새로운 공간 생산을 모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강남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청계천 일대의 도심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청계천 일대는 ‘도심 부적격 시설’로 재현된다.
2001.01.21. ~ 2008.05.27.	-청계고가 안전문제 4건 -서울시장 선거 관련 4건 -경제 및 부동산 29건 -공구상 이주정책, 철거문제 21건 -문화·생태·역사 복원에 대한 희망 14건 -재개발 비리 및 난개발 비판 13건 -서울시 계획 및 입장 8건 -전문가 의견 2건 -청계천의 먹거리·불거리 관련 9건 -춧불 시위 및 거리시위 관련 3건 -기타 청계천 복원 비판 2건	청계천 복원을 경제 및 부동산 효과와 연결하며, 복원된 청계천의 스펙터를 재현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청계천 복원 사업은 시민들에게 ‘자연’과 ‘여가’를 돌려주는 사업으로 재현된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유망업종과 쇠퇴업종이 구분되고, 청계천 ‘녹지’ 개념에 비해서, 청계천 공구상의 철거문제를 비롯한 청계천 복원에 제기되는 비판은 중요한 화두로 드러나지 못한다.

특히, 복원된 청계천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이 도로로 덮이기 이전의 청계천—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의 향수 속에 관념적으로 구성된 청계천이라는 ‘원본’—과 얼마나 가깝게 혹은 멀게 복원되었는가에서 출발하는데,¹¹⁾ 이는 2005년 복원된 청계천 담론에서 ‘도로가 제거된 청계천’이라는 기표가 과거 ‘도로가 없었던 청계천’이라는 기표를 통해 동일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로가 없었던 청계천’이라는 ‘본질’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도로가 제거된 청계천’에 대한 ‘상상’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본 논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브로델(F. Braudel), 들뢰즈(G. Deleuze), 가타리(F. Guattari)

10) 하비(D. Harvey, 1989/1994, p.262)는 ‘유인’과 ‘격퇴’ 개념을 통해 상상적으로 접근성 혹은 거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11) 2005년 11월 2일 있었던 ‘청계천 평가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생산하지 못하고 개발주의 시대의 연장에서 ‘복원’된 청계천 공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등은 “자본주의는 하나의 사회·경제체제로서 ‘자신만의 공간’을 생산 혹은 ‘영토화(Territorialization)’하고, 지배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위해 공간을 확장 혹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시키며, 축적체제의 위기에 직면하여 공간을 다시 폐쇄 혹은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한다(노대명, 2000, p.36에서 재인용)”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존해보면, 복원 이후 청계천이 물질문명과 단절하여 문화와 역사의 공간, 녹지의 공간으로 생산되었기보다는 용적률 높은 빌딩이 치솟고, 고급 레스토랑과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자본축적체제의 전환과 소비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재영토화’되었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계천 복원 사업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공간 창조의 사업으로 담론화 되었으나, 청계천 복개로부터 청계천 복원에 이르는 1960년대에서 2005년까지의 시기별 담론은 상호 단절되어 있었다기보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자본 축적을 가속화하는 동일한 담론의 구조적 양식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계천 ‘도로’에 연계된 상품과 청계천의 ‘물’과 관련된 상품이 그 외형은 다를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자본의 흐름과 축적을 통해 통제될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하비는 “실천이 건조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은 물리적 재현의 어떤 고정된 양식 속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D. Harvey, 1989/1994, p.243)”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편적 공간에 내재하는 주체의 자유로운 ‘상상’과 같은 이질적 공간실천이 보편공간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공간 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는 르페브르의 논의와 함께 공간 생산과정에 희망적 측면을 제시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배제한 청계천 공구상가의 ‘장소성’이라든가, 복원 청계천에서 열리는 소규모 공연 및 문화행사 등은 공간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담론의 층위 속에서 청계천 공간의 담론화 과정을 해석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본 연구는 담론 내부의 배치 효과로서 생산되는 의미들을 해석하고, 담론들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관통하는 의미의 축을 발견하는 데 주력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혹은 자본주의 일상이 매듭지어지는 지점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Ⅱ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내희 (1997). 『공간, 육체, 권력 : 낯선 거리의 일상』. 서울: 문화과학사.
- 강내희 (2000). 재현체제와 근대성—재현의 탈근대적 배치를 위하여. 『문화과학』, 통권 24호, 15~38.
- 강우원 (1995). 『서울 도심부 제조업의 입지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남일·백선거 (2008). TV뉴스의 특성지역 담론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KBS-TV 서울 ‘강남권역’ 보도의 담론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125~150.
- 김남주 (2000).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의 생산’과 실천. 『공간과 사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통권 14호, 63~78.
- 김수미 (1999). 『미디어의 공간 재현에 관한 연구—소비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현 (2001). 새로운 정서구조의 공간과 맑스적 장소. 『Smog』, 1호, 242~255.
- 김승현·이준복·김병욱 (2007). 공간, 미디어 및 권력: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2호, 82~121.

- 김형효 (1989).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레비-스트로쓰, 라캉, 푸코, 알튀세르에 관한 연구』, 10쇄(2000). 고양: 인간사랑.
- 노대명 (2000).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공간과 사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통권 14호, 36~62.
- 박영민 (1997).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공간과 사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통권 9호, 194~217.
- 박영철 (1979).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의 사회개발 정책과 그 실적. 『사회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한국 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59~83.
- 서울특별시 (2006). 『청계천복원 사업백서』.
- 송도영 (2003). 청계천 공구상가의 공간구조와 사회적 성격. 『환경사회학 연구』, 통권 4호, 166~190.
- 심승희 (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서울: 나노미디어.
-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
- 이원호 (1989). 『도심 부적격 기능의 정비과정에 있어서 도시정부의 역할과 상인의 대응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이정우 (1999). 『시뮬라크르의 시대: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서울: 거름.
- 이정우 (2000). 『담론의 공간』. 서울: 산해.
- 이진경 (1997a).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 이진경 (1997b). 『들뢰즈: ‘사건의 철학’과 역사유물론』. 김혜경 편.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서울: 푸른숲. 15~57.
- 전우용 외 (2001). 『청계천: 시간, 장소, 사람: 20세기 서울 변천사 연구』.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 최근희 (1996). 『서울시 도시개발정책과 공간구조』.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 최진호 (2003). 『근대적 공간표상과 신문매체: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1993). 『서울연구: 유연적산업화와 새로운 도시·사회·정치』. 서울: 한울.
-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서울: 아카넷.

2. 국외문헌

- Baudrillard, J. (1991). *Societe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이상률 역 (2002).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 Deleuze, G. (1969). *Logique Du Sens*. 이정우 역 (1999). 『의미의 논리』. 파주: 한길.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최병두 역 (1983). 『사회정의와 도시』. 서울: 종로서적.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최병두 역 (1995). 『자본의 한계』. 서울: 한울.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USA: Blackwell. 구동희·박영민 역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한울.
-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Edinburgh Univ. Press. 최병두 외 역 (2001).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서울: 한울.
- Harvey, D. (2006). "Spaces as a key word". *Spaces of Global Capitalism :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USA: Verso. 119~148.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Td. by Donald Nicholson-Smit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USA: Blackwell.

Mills, S. (1997). *Discourse*. London: Routledge. 김부용 역 (2001). 『담론』. 고양: 인간사랑.

(투고일자 : 2010.5.31, 수정일자 : 2010.7.16, 게재확정일자 : 2010.7.18)

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Cheong-gye-cheon & in Media Discourse: Based on Media Discourse During 1960s, 1980s, and 2005 in Each Period

Byung-Wook Kim^{*} • Jeong-Yoon Eom^{**} • Seung-Hyun Kim^{***}

This study interprets Cheong-gye-cheon restoration as a process of space production during expansion of capitalism, and performs discourse analysis in order to find out that how media discourse has been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Cheong-gye-cheon space in each period of historical changes. This paper is particularly concentrating on discovering regulation in discourse which connects people's experiences and perception towards certain way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wly produced space and media discourse.

This paper construes the period of 1960s as a process which pre-modern bodies and facilities were changed into modern and urban 'daily life' by practicing a space which splitted in a concept of time efficiency. In 1980s, media represented the facilities which had been constructed at the Cheong-gye-cheon space as a 'disqualified facilities for a center of the city'. This is because, tertiary industries were emerged at the 'Gang-nam' in this period which widen the gap of finance between 'Gang-nam' and 'Gang-Buk'. The government wanted to redevelop this space in order to function accumulating capital efficiently. Therefore shop owners nearby Cheong-gye-cheon were forced to move out. The discourse, 'disqualified facilities for a center of the city', implicates this process. The media discourse in the 2000s produced the 'myth' through the 'signifier' such as artificially flowing water, fine scenery, historical but artificial structure and etc.. However, people can experience symbols of the artificial structures which leads people to the luxurious restaurants, coffee shops, and etc.. Naturally, the spectacles produced by media direct people to the homogeneous pattern of consume. This phenomena can be explained as a process which people practice, intentionally or non-intentionally, the capitalistic mode of production which changed from a period of production to a period of consumption.

Keywords: Space, Production of space, Reproduction of space, Discourse analysis, Cheong-gye-cheon restoration

^{*}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s, Korea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s, Korea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s, Korea University